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The Financial Stability and Satisfaction,
Urban House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계선자
강사 정미선**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ye, Sun-Ja

Lecturer : Jeong, Mi-S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relation factors. In addition, It is also to suggest how to overcome family financial problems on urban housewives' in the time of economic crisis an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to improve economic stability.

Consequently, in the times of economic crisis, housewives' change-oriented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appeared to be more desirable. Through change-oriented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housewives needs try to find reasonable solution to improve family cohesion and financial stability. Specially, housewives have to mak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f family members.

Key Words : 재무건전성(financial stability), 가계재무관리행동(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재정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교신저자 : 정미선 (misunj21@hanmail.net)

I. 서론

2000년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불황은 가정의 경제상황을 불투명하게 하고, 가족원의 실직,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장래소득 불확실성 등 소득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는 국민경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발전하는 역동적인 체계임을 감안할때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가정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족원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그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가족원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주부의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위한 연구는 현실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원들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크레디트 카드의 과다 사용이나 이로 인한 충동구매 등의 경제적 변인은 가계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원의 재정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원의 기능성 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부는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가계 재무건전성 창출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 등 새로운 정보를 가정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무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시대에 가족원의 욕구충족은 물론 가계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관리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재무문제를 유발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개인적·경제적 외부환경 이외에 가계관리자의 재무관리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한 정선희·오정옥(1991)은 가계재무문제 대부분의

요인이 가정의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하는 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과 재정만족도 연구들(계선자·강기정, 1998; 계선자·유을용, 1999; Sumarwan과 Hira, 1993)에 의하면 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이 가족원의 재정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가계재무관리행동 혹은 가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계선자·강기정 1998; 계선자·유을용, 1999; 김순미, 1993; 김효정, 1999, 2000; 정운영·황덕순, 2002; Sumarwan과 Hira, 1993),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가계 재무건전성과 관련시켜 보고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경제위기시대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가계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주부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문제를 관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파악하여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가족원의 재정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경제위기시대 가정의 경제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기춘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할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경자(2003)도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해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며 또한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수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정의 관리체계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체계적 접근으로 가계관리를 언급한 Titus, Fanslow와 Hira(1989)에 의하면, 투입은 목표 및 사건에 대한 요구와 이용가능한 인적·물적자원으로, 변환과정은 가계의 실제 재무관리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재정적 목표의 충족여부와 자원의 최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출은 지불능력, 순자산, 만족감으로 표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주관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에 의한 가계재무관리행동(계선자·강기정, 1998; 김순미, 1993; Summarwan & Hira, 1993; Walson & Fitzsimmons, 1993)과 가계재무관리행동유형은 관리과정의 중요한 변인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김효정(1999)은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가계의 재무행동으로 보고,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자원과 요구를 투입변수로, 재무관리행동을 변화과정변수로, 재정만족도를 산출변수로 하여 가계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가계재무관리 과정에는 목표설정·표준설정·자원평가·정보수집 등의 계획과 이의 점검·조

정·평가 등의 수행이 포함되는데, 가계재무관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사용을 통해 관리행동의 산출인 자산축적과 재정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Garman과 Fargue(1994)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가계의 현금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3년 동안 7개의 가계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의 질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가계에서 예산 등을 꼼꼼히 세우기보다는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현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Muske와 Winter, 2001).

가정체계의 몰입 정도와 새로운 요구에 대해 연구한 Beard와 Firebaugh(1978)에 의하면, 현재의 목표 또는 불변의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며 자원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나 기회가 거의 없고, 일의 순서를 정할 때도 비교적 융통성이 낮은 안정지향형 재무관리행동은 새롭고 좋은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에 대한 계획에 집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욕구충족들로 인해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순서를 정할 때도 융통성이 높은 변화지향형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새로운 욕구 및 변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ennickell 등(1997)은 고소득층 8명을 대상으로 재정계획과 재무관리 수행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고소득층은 정교한 방법으로 재정계획을 활용하였고, 재정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정보 활용과 재무전략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무전문가에게도 정보를 자문받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은실(1996)은 성공적인 계획행동유형은 적극적인 변화지향형 재무관리행동이라고 보았고, 재정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가족

원의 요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증가시키는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주부의 정보활용이나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 등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 변화지향형 재무관리행동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시주부의 가계 재무건전성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 시대에 가계 소득이 적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불충분한 가계는 물론 소득이 적정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실업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에서는 가정내 재정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계의 재무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가계재정상태에 대해 김경자(1993)는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였는데, 가계 재무건전성이란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이전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계의 재무상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운영·황덕순(2002)은 사전적 의미로써의 가계 재무건전성이란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가계가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위험에 대비한 가계의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지표로 정의하였다.

한편 황덕순(1993)은 재정적안정, 재정적압

박감,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대처행동, 인적사항, 소득관련 변수, 고용관련 변수를 통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상태를 연구한 결과, 재정적으로 안정될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McGregor와 Goldsmith, 1998; 고보선·임정빈, 2000; 박미금, 1993)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주관적 지표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 재정자원에 대한 노출정도 인지 등과 같은 재정적 요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화폐소득, 일정기간의 소비지출, 소득/순자산, 순자산가치 등과 같은 재정자원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Winter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두 가지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Walson과 Fitzsimmons(1993)는 가계소득적정인지도와 가계소득, 저축가능액, 현재부채액, 소비수준, 순자산의 양, 재정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대한 만족도로 주관적 지표를 제시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최근에 보고한 가계 재무건전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나 재정만족도에서 연구되고 있는 가계소득적정도인지, 소득적정감, 상대소득수준인지, 자원적정도인지에 대한 변인을 이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경제만족도 혹은 재정복지 등과 관련하여 연

구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Sumarwan과 Hira(1993)는 재정상태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적정도 인지에 비중을 두어 가계 재무건전성을 측정함으로써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Waddell(1999)은 재무건전성을 재무문제의 심각도 단계로 네 가지 수준, 즉 원만한 수준, 위험한 수준, 심각한 수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원만한 수준은 재무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금전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가족들과 불화가 있는 단계이며, 둘째 위험한 수준은 재무상담이 필요한 단계로써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다음 월급을 타기 전에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이다. 셋째 심각한 수준은 재무상담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넷째 아주 심각한 수준은 즉각적인 재무상담이 더 필요한 단계 즉 파산신청을 하거나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김경자 등 1999).

또한 강기정(1999)도 주관적인 경제자원을 평가할 때 소득적정감이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고 하였고, 특히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하는 경우 소득적정감은 재정만족의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미금(1993)도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으로 소득적정감을 측정한 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주부의 경우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인 소득적정감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소득적정감, 상대소득 수준인지, 자원적정도인지, 상대적비교감, 생활수준비교감, 재무문제심각도 등은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간

주할 수 있다.

2)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지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재무비율을 들 수 있다. 가계재무비율 분석은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수지,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가계재무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위험, 부채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포함하는 가계의 안정성, 가계의 성장성 등과 같은 가계경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한 비율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DeVaney(1994)는 재무비율을 총자산/총부채, 투자자산/순자산, 유동자산/가처분소득, 연간소비자 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연간주거비/총소득, 총연간 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등으로 하여 이를 통해 가계파산의 예측에 대한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양정선(1997)이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에 기초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는데, DeVaney(1994)의 연구를 기초로 재무비율 분석과 국내 가계의 특수성인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 즉 실물자산/총부채 비율,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총부채/연간총소득 비율,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소득 비율과 최적생계비/월지출 비율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이 아닌 미국에서 제시된 것을 그대로 적용한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최현자 등(2003)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고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즉 안정성지표와 성장성 지표에 관한 재무비율을 하위 11개의 항목으로써, 가계수지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미만,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0초과, 혹은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초과, 위험대비지표(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

득) 0초과 0.2미만, 부채부담지표(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미만, (총부채/금융자산) 1.0미만, (총부채/총자산) 0.8미만,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초과, 투자성향지표(투자자산/총자산) 0.05초과 0.1미만(실물자산/총자산) 0.9미만, 유동성지표(금융자산/총자산) 0.1초과의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상자금지표의 경우 몇몇 선행연구들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달리 절대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수준의 비상자금인 1개월 정도의 생활비 혹은 가계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만 가지고 있어도 안정적인 것으로 준거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계수지표인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비율과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및 총부채/총자산 비율은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적어도 가계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면 안되며 부채를 상환하는데 월소득의 25% 이상은 지불되지 않도록 부채사용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동필(2003)은 가계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 및 주관적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수익성지표(가계수지지표), 안정성지표(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지표(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로 구분하였다.

3.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

경제적 생활속에서 느끼는 재정만족도란 경제적 목표나 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한 충족감의 주관적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는 가계가 기대하는 경제적 생활 표준으로서의 재정 수준과 지각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재정수준의 정도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홍향숙, 1997).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를 체계론의 적용가능성으로 검토한 김순미(1993)에 의하면 재정적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금전제약과 생활수준, 월평균소득액, 그리고 재무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월평균소득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관리행동에 대해 김효정(1999)은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척도로서 월평균저축액, 본인의 재무관리행동, 부부의 의사소통 빈도 등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정빈 등(1998)은 재무관리수행행동이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월평균생활비, 저축액 등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미금·계선자(1994)는 가정자원의 최적의 사용에 따른 최대의 만족과 효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가계관리행동을 통해 부부공동참여의 가계관리행동을 할 때 재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계선자 등(2005)도 가족체계역동성의 하위영역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 부부의사소통도로 분류하여 이들의 변인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 취업주부가계의 배경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에 따른 재정만족도는 가계월평균소득과 남편의 직업안정성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김나연(1997)은 연령이 낮은 집단의 주부가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의 주부보다 대졸이상의 주부가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종 정보의 수용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원의 투입이나 변화를 가계재무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다(김나연, 1997).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 계선자·유을용(2002)은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분배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주부의 취업여부에 대해 강기정(1999)은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가계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계총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활정보 활용도가 높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을용(2002)에 의하면 주택소유여부는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주택은 자산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2) 사회심리적 변인

가족응집성에 대해 박명숙(2003)은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와 가계 재무위기와 관계에서,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일치

도가 높을수록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정운영·황덕순(2002)은 연령이 30대 40대, 가장의 연령이 낮은 가계일수록 재무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거집단영향력에 따라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김효정, 1999). 한편 준거집단영향력이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는 이웃이나 친지와 비교했을 때 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분석을 한 결과,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2000). 또한 가계의 재정만족에 대해 강혜경·계선자·유을용(2005)은 도시 취업주부의 재정만족도는 주부 자신의 준거집단영향을 대체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수연·김득

성(1997)의 설문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응집성 수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의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집단영향력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을용(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활방식과 구매행동에 있어서 친구나 이웃, 주위사람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해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준거집단영향력의 Cronbach's α 는 .73로 나타났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강기정(1999)의 연구에서 가계재무관리 문항 중 계획·수행변인과 최동숙(199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투입·과정·산출요소간의 인과관계 중 가정자원관리행동의 과정에 해당하는 요소로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관한 문항 10), 13), 표준과 일의 순서 및 계획의 융통성에 관한 문항 5), 6), 14), 자원 활용 2), 3), 4), 8),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관한 문항 1), 7), 9), 11), 12) 으로 수정·보완하여 가계재무관리행동 변인을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않다’의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배점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은 Waddell(1999) 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채·위험성향 3문항, 저

축·안정성향 2문항을 작성하였고, 또한 박미금(1993)의 소득적정감 1문항을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0이다.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은 재정상태를 객관적지표로 구성하였다.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보험료, 월평균저축액, 월평균부채상환액, 실물자산, 금융자산, 투자자산, 총부채액에 대해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작성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재무상태가 건전한 가계, 즉 안정 가계란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이 세지표의 준거기준이 모두 건전한 재정상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계를 의미한다. 한편 안정가계의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한가지 지표라도 양호기준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정가계라고 하였다.

종속변인인 재정만족도는 경제자원적정감, 상대적비교감, 재정적안정감 등의 하위영역으로 총 9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유 배우자로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는 2005년 7월 6일~7월 31일까지 83부의 1차 예비조사와 2005년 8월 4일~8월 2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질문을 삭제 혹은 추가하는 작업과 질문의 용어, 배열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정 작업을 거쳤다. 본조사는 1, 2차의 예비조사 후 설문지

를 수정·보완한 뒤 2005년 8월 25일~9월 10일 까지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된 총 600부의 설문지 중 425부를 회수하였으며, 기재가 미비한 것으로 판정된 9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7부 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test, ANOVA, Duncan 사후검증법, χ^2 ,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수준

1) 배경변인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2)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재정만족도의 일반적 수준

도시주부가 인지하는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일

<표 1> 조사대상자 배경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N = 327)		
변 인		구 분	빈 도	%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연 령	35세 미만	65	19.9
		35세 이상~40세 미만	44	13.5
		40세 이상~45세 미만	77	23.5
		45세 이상~50세 미만	79	24.2
		50세 이상	62	1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3	16.2
		고졸	94	28.7
		대졸	140	42.8
		대학원 이상	40	12.2
	남편의 직업유형	단순노무·생산기능직	99	30.3
사무직		80	24.5	
자영업		71	21.7	
관리·전문직		77	23.5	
주부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151	46.2	
	취업주부	176	53.8	
거주지역	강남지역	57	17.4	
	강북지역	107	32.7	
	강서·강동지역	121	37.0	
	수도권(경기, 수원, 인천)	42	12.8	
주택소유 여부	자가	218	66.7	
	전세	68	20.8	
	월세 및 기타	41	12.5	
사 회 심 리 적 변 인	가족응집성	낮은 집단	69	21.1
		중간 집단	147	45.0
		높은 집단	111	33.9
	평 균 3.53			.71(Sd)
	준거집단 영향력	낮은 집단	84	25.7
중간 집단		125	38.2	
높은 집단		118	36.1	
평 균 3.04			.65(Sd)	

반적수준은 <표 2>와 같이,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변화지향적 관리행동수준이 중간이상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2>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 건전성, 재정만족도의 일반적 수준 (5점만점)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계재무관리행동	3.30	.79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3.48	.94
재정만족도	2.88	.84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의 일반적 수준은 도시주부가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가계의 재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서 평균 3.48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8점으로 3점을 중간점으로 볼 때,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은 조사시점의 경제환경이 경제성장 둔화, 수출과 내수경기침체 등에 의해 도시주부들이 직접적인 경기체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3.30점)을 하는 편이며 가계 재무상태는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재정만족 수준은 가계 재무건전성 수준에 비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즉 재정만족도(2.88점)는 가족원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와 목표의 달성,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재정의 풍요를 만족시키는 기대수준이 높음에 비해 현실의 경제환경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한편, 조사대상자 가계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해 재무비율을 근거로 객관적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수준에 따른 가계 재정상태

(N=327)

내 용		현 재정상태		평균
		양호(%)	비양호(%)	
수익성 지표	① 가계수지표	319(97.6)	8(2.4)	.58
	② 비상자금지표	288(57.5)	39(42.5)	8.3
안정성 지표	③ 위험대비지표	256(78.3)	71(21.7)	.12
	④ 부채부담지표	236(72.2)	91(27.8)	.15
성장성 지표	⑤ 유동성지표	166(50.8)	161(49.2)	.15

주) 준거기준 : 가계수지표 0.9미만, 비상자금지표 1.0초과, 위험대비지표 0이상 0.2미만, 부채부담지표 0.25미만, 유동성지표 0.1초과

2.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 재무건전성, 재정만족도

1)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

<표 4>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연령의 경우, 연령이 40세에서 45세 미만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관리시 정보활용을 잘하고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보인다는 김나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의 경우에 대학원이상, 대졸, 고졸, 중졸의 순으로 가계재무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보인 선행연구(김나연, 1997)와 일치한다.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집단의 경우 단순노무·생산기능직 집단에 비해 변화지향적인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주부의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변화지향적 재무관리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취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제생활정보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거주지역의 경우 강남지역거주 집단이 타 지역 집단에 비해 변화지향적 재무관리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강남지역 주부들이 보다 변화추구에 적극적이고 계획이나 목표에 융통성을 보이며 새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에서도 자가소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사회심리학적 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은 <표 4>와 같이, 가족응집성 변인이 중간이상인 집단이 낮은집단에 비해 보다 변

(표 4)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차이

(N=327)

변인		가계재무관리행동			
		M(평균)	Duncan	F / t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3.38	BC	6.28***
		35세 이상~40세 미만	3.39	BC	
		40세 이상~45세 미만	3.57	C	
		45세 이상~50세 미만	3.18	AB	
		50세 이상	2.95	A	
	교육수준	중졸	2.14	A	90.25***
		고졸	3.29	B	
		대졸	3.59	C	
		대학원 이상	3.83	D	
	남편의 직업유형	단순노무·생산기능직	2.58	A	60.83***
		사무직	3.52	B	
		자영직	3.70	B	
		관리·전문직	3.62	B	
	주부 취업여부	전업주부	3.15		22.97***
		취업주부	3.42		
	거주지역	강남 지역	3.79	B	10.10***
강북 지역		3.19	A		
강서·강동 지역		3.16	A		
수도권 지역		3.30	A		
주택소유 여부	자가	3.55	C	86.20***	
	전세	3.17	B		
	월세 및 기타	2.13	A		
사회심리적 변인	가족응집성	낮은 집단	2.34	A	104.03***
		중간 집단	3.52	B	
		높은 집단	3.60	B	
	준거집단 영향력	낮은 집단	3.21	A	7.18**
		중간 집단	3.15	A	
		높은 집단	3.51	B	

** $p<.01$, *** $p<.001$

주) M (평균)값이 커질수록, 가계재무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임을 의미함

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준거집단영향력에서도 준거집단영향력이 높은집단이 중간이하의 집단에 비해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1$).

2)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

(1)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표 5>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의 경우, 50세 이상 주부집단이 50세 미만 모든 주부집단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부담감 및 재정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을용(2002)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장의 명예퇴직, 자녀의 결혼준비나 대학등록금 등 큰 돈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 수준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서 대졸이상인 집단이 중졸이하, 고졸인 집단에 비해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금전제약을 덜 받으며 재정적으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난 김순미(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유형의 경우에는 자영직, 사무직 혹은 관리·전문직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가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p<.001$). 즉 남편의 직업유형은 직업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직업유형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부의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와 같은 결과는 강기정(1999)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경우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통해 가계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고, 정보활용 및 구매활동 등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의 경우, 대체로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타 지역의 집단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주택소유여부는 각 집단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즉 자가인 집단이 전·월세인 집단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자산소득 가치가 높아서 많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특정상황에서도 지불능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보고한 김연정(1998)의 연구와 맥이 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심리적 변인 중 가족응집성이 중간이상인 집단이 낮은집단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가족응집성이 높은 부부의 재무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재무위기 대비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박명숙(2003)의 연구결과와 재무관리를 할 때 가족이 함께 토론이나 대화를 통하여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아일보(2006.3.3)의 보도자료와 일치한다. 준거집단 영향력의 경우, 영향력이 낮은 집단이 중간이상 집단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높게 나타났다($p<.01$).

〈표 5〉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의 차이

변인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M	D	F / t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3.55	B	5.19**
		35세 이상~40세 미만	3.66	B	
		40세 이상~45세 미만	3.72	B	
		45세 이상~50세 미만	3.41	B	
		50세 이상	3.06	A	
	교육수준	중졸	2.24	A	61.43***
		고졸	3.49	B	
		대졸	3.83	C	
		대학원 이상	3.86	C	
	남편의 직업유형	단순노무·생산기능직	2.65	A	58.62***
		사무직	3.82	BC	
		자영업	3.99	C	
		관리·전문직	3.71	B	
	주부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3.36		7.83**
		취업주부	3.57		
	거주지역	강남 지역	3.88	B	5.06**
강북 지역		3.37	A		
강서·강동 지역		3.35	A		
수도권 지역		3.56	A		
주택소유 여부	자가	3.77	C	124.88***	
	전세	3.51	B		
	월세 및 기타	1.87	A		
사회심리적 변인	가족응집성	낮은 집단	2.34	A	109.22***
		중간 집단	3.71	B	
		높은 집단	3.88	B	
	준거집단 영향력	낮은 집단	3.77	B	6.39**
		중간 집단	3.31	A	
		높은 집단	3.45	A	

p<.01, *p<.001

(2)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p<.001), 남편의 직업(p<.001), 주부의 취업여부(p<.05), 주택소유여부(p<.001)에서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안정가계에서는 대졸 47.8%, 고졸 24.2%, 대학원 이상 16.9%,

중졸 11.1%로 나타나 대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불안정가계로는 고졸 36.7%, 대졸 34.2%, 중졸 25.5%, 대학원 이상 4.2%로써 고졸 집단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편의 직업유형에서 자영업 28.0%, 사무직 23.7%, 관리·전문직 21.3%로 73%의 높은 비율이 안정가계로 나타났고, 반면 단순노무·생

산기능직은 51.7%가 불안정가계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서는 전업주부 50.2%, 취
 업주부 49.8%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안

정가계의 집단간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취업주부 중 불안정가계가 60.8%
 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의 차이

(N=327)

변 인		객관적 재무건전성		계	x ² 값 및 유의수준	
		안정/N(%)	불안정/N(%)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연령	35세 미만	35 (16.9)	30 (25.0)	65	9.6
		35세 이상~40세미만	23 (11.1)	21 (17.5)	44	
		40세 이상~45세미만	55 (26.6)	22 (18.3)	77	
		45세 이상~50세미만	56 (27.1)	23 (19.2)	79	
		50세 이상	38 (18.4)	24 (20.0)	62	
		계	207(100)	120(100)	327	
	교육 수준	중졸	23 (11.1)	30 (25.5)	53	26.6***
		고졸	50 (24.2)	44 (36.7)	94	
		대졸	99 (47.8)	41 (34.2)	140	
		대학원 이상	35 (16.9)	5 (4.2)	40	
		계	207(100)	120(100)	327	
	남편의 직업 유형	단순노무·생산기능직	37 (17.9)	62 (51.7)	99	25.3***
		사무직	49 (23.7)	31 (25.8)	80	
		자영직	58 (28.0)	13 (10.8)	71	
		관리·전문직	44 (21.3)	33 (27.5)	77	
		계	207(100)	120(100)	327	
	주부의 취업 여부	전업주부	104 (50.2)	47 (39.2)	151	3.74*
		취업주부	103 (49.8)	73 (60.8)	176	
		계	207(100)	120(100)	327	
	거주 지역	강남 지역	39 (18.8)	18 (15.0)	57	2.19
강북 지역		62 (30.0)	45 (37.5)	107		
강서·강동 지역		79 (38.2)	42 (35.0)	121		
수도권 지역		27 (13.0)	15 (12.5)	42		
계		207(100)	120(100)	327		
주택 소유 여부	자가	160 (77.3)	58 (48.3)	218	20.6***	
	전세	37 (17.8)	31 (25.8)	68		
	월세 및 기타	10 (4.8)	31 (25.8)	41		
	계	207(100)	120(100)	327		
사 회 심 리 적 변 인	가족 응집성	낮은 집단	24 (12.2)	45 (37.5)	69	31.0***
		중간 집단	102 (49.3)	45 (37.5)	147	
		높은 집단	81 (39.1)	30 (25.0)	111	
		계	207(100)	120(100)	327	
	준거 집단 영향력	낮은 집단	47 (22.7)	37 (30.8)	84	2.83
		중간 집단	84 (40.6)	41 (34.2)	125	
		높은 집단	76 (36.7)	42 (35.0)	118	
	계	207(100)	120(100)	327		

*p<.05, ***p<.001

※ 안정가계 :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가 모두 양호한 가계

불안정가계 :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한개의 지표라도 준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

주택소유여부에서는 자가집단이 안정가계가 77.3%로 높게 나타났고, 전세 25.8%, 월세 및 기타에 거주하는 비율의 24.8%가 불안정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사회심리적변인 중 가족응집성에 따라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즉 가족응집성이 중간 집단 49.3%, 높은 집단 39.1%, 낮은 집단 12.2%가 안정가계로 나타나, 가족응집성이 중간 이상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안정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응집성이 높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가계재무관

리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

<표 7>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에 따라 재정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대학원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대졸, 고졸, 중졸의 순으로, 즉 도시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황덕순(1993)의 학력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전문직, 자

<표 7>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의 차이

변인		재정 만족도			
		M	D	F / t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35세 미만	3.04	1.73	
		35세 이상-40세 미만	2.86		
		40세 이상-45세 미만	2.98		
		45세 이상-50세 미만	2.76		
		50세 이상	2.74		
	교육수준	중졸	1.99	A	52.33***
		고졸	2.66	B	
		대졸	3.17	C	
		대학원 이상	3.54	D	
	남편의 직업유형	단순노무·생산기능직	2.13	A	70.06***
		사무직	2.93	B	
		자영직	3.20	C	
		관리·전문직	3.48	D	
	주부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2.80	4.57*	
		취업주부	2.94		
	거주지역	강남 지역	3.38	C	11.71***
		강북 지역	2.70	A	
		강서·강동 지역	2.72	A	
수도권 지역		3.08	B		
주택소유 여부	자가	3.13	C	80.99***	
	전세	2.79	B		
	월세 및 기타	1.65	A		
사회심리적 변인	가족 응집성	낮은 집단	1.94	A	83.12***
		중간 집단	3.05	B	
		높은 집단	3.23	B	
	준거집단 영향력	낮은 집단	2.77	2.83	
		중간 집단	2.81		
높은 집단		3.02			

* $p<.05$, *** $p<.001$

영직, 사무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의 순으로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유을용(2002)의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일 때, 한정화(1997)도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에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형과 소득수준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주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관리직일수록 주부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한정화(199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거주지역의 경우, 강남지역 거주 집단이 타지역 거주 집단 보다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주택소유여부에서도 자가 소유집단과 비자가 소유집단은 재정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즉 자가소유 집단이 비자가소유 집단에 비해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을용(2002)의 자가소유 집단의 재정만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박미금(1993)의 주택소유여부가 경제생활 만족도의 중요 예측치 라고 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심리적 변인 중 가족응집성에서 응집성 수준이 중간 이상인 집단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가족구성원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재정만족도가 높다고 한 한정화(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분석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 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는 가계재무관리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주부의 교육수준($\beta=.31$), 남편의 직업유형이 사무직($\beta=.14$), 자영직($\beta=.22$), 관리·전문직($\beta=.33$), 주택소유여부에서는 자가($\beta=.41$), 전세($\beta=.27$)등이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생산기능직이 아닌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 자가주택이나 전세일 때 주부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황덕순(1993)과 일치한다. 남편의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전문직, 자영직, 사무직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에 비하여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을용(2002), 한정화(1997), 김순미(1993), Sumarwan과 Hira(1993), Danes와 Rettig(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주택의 소유여부 변인도 주부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가소유이거나 전세인 경우 월세의 주부보다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유 가계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계선자·유을용(1999), 한정화(1997)의 연구와 맥이 통하는 결과이다.

다음 2단계에서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교육수준($\beta=.31$), 자영직($\beta=.20$), 관리·전문직($\beta=.30$), 자가($\beta=.20$), 전세($\beta=.1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응집성($\beta=.29$)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주부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단계로 변화지향 가계재무관리행동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beta=.22$), 자영직($\beta=.13$), 관리·전문직($\beta=.26$), 자가($\beta=.14$), 가족응집성($\beta=.1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지향 가계재무관리행동($\beta=.29$)수준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변화

〈표 8〉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01	.06	.01	.06	.01	.05	.05	.05	.06	.06
	교육수준 [남편직업유형] ^a	.08	.31***	.08	.31***	.06	.22***	.05	.19***	.05	.19***
	사무직	.27	.14*	.17	.09	.09	.04	.06	.00	-.03	-.01
	자영직	.46	.22***	.41	.20***	.27	.13*	.16	.08	.17	.08
	관리·전문직 [주부취업여부] ^b	.66	.33***	.59	.30***	.52	.26***	.48	.24***	.50	.25***
	전업주부 [거주지역] ^c	.09	.05	.02	.01	.07	.04	.10	.06	.03	.02
	강남/서초/송파	.09	.04	.12	.05	.01	.01	.02	.01	-.09	.04
	강북	-.16	-.09	-.16	-.09	-.19	-.11	-.14	-.08	-.13	-.07
	강동/강서 [주택소유여부] ^d	-.12	-.07	-.19	-.05	-.12	-.07	-.08	-.04	-.06	-.03
	자가	.74	.41***	.35	.20**	.25	.14*	-.06	-.04	-.03	-.02
	전세	.55	.27***	.28	.13*	.25	.12	-.07	-.03	-.09	-.04
	사회심리적 변인	가족응집성			.34	.29***	.22	.19***	.14	.12*	.15
준거집단영향력				.05	.04	.02	.01	.13	.10**	.07	.05
가계재무 관리행동	변화지향적 가계재무관리행동					.31	.29***	.13	.12*	.09	.12*
	주관적재무 건전성							.35	.39***	.28	.32***
객관적재무 건전성	가계수지지표									-.57	-.13**
	비상자금지표									.02	.01
	위험대비지표									1.16	.11**
	부채부담지표									-.14	-.03
	유동성지표									.29	.06
Adjust R ²		.54		.59		.62		.66		.69	
R ² Change				.06***		.03***		.04***		.03***	
F값 및 유의도		35.04***		21.58***		25.68***		43.14***		5.49***	

*p<.05, **p<.01, ***p<.001

a: 남편직업 기준-단순노무·생산기능직, 비교-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

b: 주부직업 기준-취업주부, 비교-전업주부

c: 거주지역 기준-수도권, 비교-강남/서초/송파, 강북, 강동/강서

d: 주택소유여부 기준-월세 및 기타, 비교-자가, 전세

지향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나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다음 4단계로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beta=.19$), 관리·전문직($\beta=.24$), 가족응집성($\beta=.12$), 준거집단영향력($\beta=.10$), 변화지향 가계재무관리행동($\beta=.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beta=.39$)이 높을수록 도시주부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을 추가한 결과, 교육수준($\beta=.19$), 관리·전문직($\beta=.25$), 가족응집성($\beta=.13$), 변화지향 가계재무관리행동($\beta=.12$),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beta=.3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수지지표($\beta=-.13$), 위험대비지표($\beta=.11$)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계수지지표는 작을수록, 반면 위험대비지표는 클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동필(2003), 최현자 등(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주부의 재정만족도는 월평균가계소득 수준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볼 때 월평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대비지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금으로 주부의 경제적 긴장감을 감소시키므로 재정만족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주부가 변화지향적인 가계재무관리를 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부 스스로 가계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54%($p<.001$)로 나타났으며, 2단계의 사회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59%($p<.001$)로 1단계에 비해 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 가계재무관리행동변인을 추가한 결과 62%($p<.001$)로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

다. 그리고 주관적 가계재무건전성 변인을 추가 분석한 4단계에서 설명력이 66%($p<.001$)로 4%가 증가하였고, 마지막 5단계에서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을 추가한 결과 69%($p<.001$)로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사회심리적변인, 가계재무관리행동변인,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변인, 객관적 가계 재무건전성 변인인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VI. 결론

1) 자가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가계에서는 자가주택을 소유하므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은 자산의 가치평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주택공급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수급 균형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마련하여 자가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고 주부들의 건전한 가계재무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취업주부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계재무건전성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간이하 집단의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테크 정보를 활용하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재테크 성공사례나 주변의 재테크 성공담 등에 관하여 재무상담과 교육에 참가하여 주부들이 현재의 재정상태에 적합한 재무지식을 획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주관적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응집성에 따라 주관적 가계재무건전성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앞으로 각 가정에서 주부는 가계의 재무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간 상호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계획성있고 합리적인 가계관리로 가계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측에서는 지역단위로 가족기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구성원의 단합과 결속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보고, 가계 재무건전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재무관리자인 주부가 재무건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계의 궁극적 목표인 재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1)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유 배우자로서 서울시(강남지역, 강북지역, 강서·강동지역)와 수도권(경기, 수원, 인천)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단순히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향후 주부의 취업직종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을 연구할 경우, 또 다른 세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가계재무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가계 재무건전성 모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가계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 실직가장의 가정, 부채가 심각하여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부채 및 신용카드 등, 가계재무위기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가계재무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가계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재무진단용 소프트웨어를 더욱 정교화하여 재무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 재무상담 및 교육을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재정만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 강혜경, 계선자, 유을용(2005). 도시 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3(7), 53-65.
- 3) 계선자, 강기정(1998).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에 따른 체계적 접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21-38.
- 4) 계선자, 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39.
- 5) 계선자, 유을용(2002).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 6) 고보선, 임정빈(2000). 가계재정복지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4(2), 45-56.

- 7) 김정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 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8) 김정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9) 김정자, 김기옥, 배미경, 손상희, 성영애, 양세정, 윤정혜 편역의 Fred. E.Waddell, Ph.D(1999).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시그마프레스.
- 10) 김나연(1997).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따른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 및 사용·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1) 김수연, 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12)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13) 김연정(1998).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14)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15)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53-66.
- 16) 박명숙(200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 17)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8) 박미금, 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19)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0) 오경희(1993). 가정관리유형, 생활정보 활용수준 및 가족결속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1) 유을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2) 이기춘 외(1998). 소비자재무 설계론. 학현사.
- 23)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24) 정선희, 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25)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광주광역시 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26) 조동필(2003).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 석사학위논문.
- 27)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8)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29)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30)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31) 홍은실(1996). 도시주부의 가치와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32)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33) Beard, D. M., & Firebaugh, F. M.,(1978).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192-205.
- 34) Bowen, C. F., Lago, D. J., & Furry, M. M.(1997). Money management in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a racial, ethnic, and limited income perspective.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9in(2) Fall, 32-42. Association, 170-180. Washington, D.C. : AHEA.
- 35) Danes, S. M. & Retting, K. 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9.
- 36) DeVaney, S.(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 37) Garman, E. T. & Fogue, R. E.(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38) Hira & Mugenda, O. M.(1998). Predictors of Financi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75-83.
- 39) Hira, T. K., Fitzsimmons, V. S, Hafstrom, J. L., & Bauer, J. 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40) Kathleen, M. M.(1994). Conflict and financial decision making : A study of financial satisfaction for husbands and wives. University of Minnesota. Ph. D.
- 41) Kennickell, A. B., Starr-McCluer, M., & Sunden, A. F.(1997). Saving and financial planning : Some findings from a focus group.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8.
- 42) McGregor, L. T. & Goldsmith, E. B(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ummer, 2-6.
- 43) Muske, G., & Winter, M.(2001). An in-depth look at family cash-flow management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53-372.
- 44) Titus, P. M, Fanslow, A.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45) Ujang Sumarwan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46) Walson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47) Winter, M. B. & Rubic.(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4, 293-299.

48) 동아일보. 2006년 3월 3일 자. “가정경제 업그레이드”, ‘우리집 살림도 투명하게’.

- 접수 일 : 2007년 7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27일